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 30(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대구·경북 시도민, 생존권 확보 위해 한목소리 내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 열어 6천여 명 대구·경북 시·도민...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투자유치실	
② 경북도, '도청신도시 재조명과 활성화 전략' 토론회 가져 신도시 개발계획 진단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신도시조성과	
③ 경북도,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 대폭 강화 대성청정에너지(주), 도시가스요금 검찰수사 발표 대응... 방안 마련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생활경제 교통과	
④ 경북도, 기업중심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 정책과	
⑤ 설 연휴 경북의 대물림 향토맛집으로 떠나는 맛있고 신나는 겨울여행 수십년 대대로 이어 온 맛의 전통, 입맛을 사로잡는 경북의 대물림 맛집 설 연휴에 떠나는 맛있는 겨울여행, 건강과 즐거움이 듬뿍	관광마케팅과	
⑥ 경북도, 설 연휴 비상진료 및 방역체계 구축 도 및 시군에 비상대책 응급·방역 총 53개반 226명 가동 응급의료기관 32개소, 당직의료기관 1,016개소, 휴일자킴이약국 971개소 운영	보건정책과	
⑦ 새로운 동해안 100년의 먹거리·일자리 찾는다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동해안정책과	
⑧ 산림기관·단체장 한자리에... 경북도 산림시책회의 가져 올해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복지 등에 2,800억원 투입	산림자원과	
⑨ 우리가락에 새해 소망 싣고 열썬... 새해 첫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31일(목) 저녁 7시,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문화예술과	
⑩ 경북도, 설 연휴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화재예방 캠페인도 가져 예천군 상설시장 상가 전기·가스시설점검... 소화기 전달	안전정책과	
⑪ 도 농업기술원, 미래기술 중심 연구개발사업 시행 신규 연구과제 선정 심의회... 스마트팜, 기상재해 대비 등 26개 과제 선정	농업기술원	
⑫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가져 전담의용소방대원 775명...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교육	소방본부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울진군 현장 간담회' 개최	대 변 인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 자	실 장	황 중 하		
			팀 장	장상열	주무관	임필규
연 락 처	054-880-4621					

## 대구·경북 시도민, 생존권 확보 위해 한목소리 내

-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 열어 -
- 6천여 명 대구·경북 시·도민...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

경상북도는 30일(수)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다.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대·내외에 표방해 지방 경제위기, 지방소멸의 절박한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백승주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대구·경북 경제단체, 시도민 등 6천여 명이 참석해 지역민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합창,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유치 활동 영상상영, 대구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한 후 경북도·구미시목인 느티나무와 대구시목인 전나무를 현장에서 기념식수 했다.

결의문에는 대구·경북은 경제공동체로 지방경제 복원을 위한 상호협력,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구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등의 염원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결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유치가 어려워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인재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SK 하이닉스 유치는 대구·경북 일자리 창출 상생모델”이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는 대구·경북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시도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8일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에 이어 22일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23일 야 4당 원내 대표 예방,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붙임 사진자료

# 희망 2019!

##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

- ❖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생존을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는 기회 마련
- ❖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 I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 30(수) 14:00
- 장 소 :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산동면 동곡리 818번지)
- 인 원 : 6,000명 정도
  - 도지사, 대구시장, 구미시장, 국회의원, 사도의원, 대구경북 경제단체, 시도민 등
- 내 용 : 국가균형발전 및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 II 시간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13:20~14:00	40분	▶ 식전행사(색소폰 공연, 시립합창단 및 무용단, 난타공연)	
14:00~14:10	10분	▶ 개회선언, 국민의례	
14:10~14:20	10분	▶ 인사말씀(지자체장,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장)	
14:20~14:25	5분	▶ 영상상영	
14:25~14:30	5분	▶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 낭독 - 낭독 : 대구·경북 상의회장 등 30명	
14:30~14:35	5분	▶ 시도민 염원 풍선 날리기(대구·경북 상의회장 등 30명)	
14:35~14:40	5분	▶ 상생기념 식수(지자체장,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장)	
14:40~14:50	10분	▶ 대북공연	
14:50~15:00	10분	▶ 식후행사(치어리딩 공연, 아이스버킷챌린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결의문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중심 중앙집권적 한계를 깊이 우려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재하 회장)

하나, 대구경북은 하나의 문화와 경제공동체로서 지방위기 극복과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조정문 회장)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천명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라. (이재하 회장)

하나, 구미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었으며,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탕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강력히 염원한다. (조정문 회장)

2019년 1월 30일 (같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구미시 (같이)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			
		작성자	과장	이재윤		
			팀장	최병환	담당자	김명종
		연락처	054-880-4232			

## 경북도, ‘도청신도시 재조명과 활성화 전략’ 토론회 가져

- 신도시 개발계획 진단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30일(수)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관계전문가, 주민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공사가 준공된 후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경북도청신도시를 진단하고 현재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신도시 정책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8명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종 선임연구위원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교통체계 구축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대 접근성 확보, 국제 철도망 연결 및 신도시내 사람중심 도시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재 관광산업연구실장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관광플랫폼화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주도형 관광거점 인프라 창출, 이동과 체류 편의 향상을 위한 관광모빌리티 혁신 등 경북 문화도시 진흥지원 제도화 구상을 제안했다.

오씨에스도시건축 조경훈 소장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략 구상’

에서 경북도청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창출 및 인구유입과 지역자원 및 정책지원의 연계, 공원·녹지 및 물순환 자연환경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안동 관광혁신거점지구 조성과의 연계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거점기능 강화와 인구감소시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단계별 토지 공급 전략을 제시했다.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는 사회가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시대인 만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도시 활성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함을 확인했다”며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은 1단계 사업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도시가 그 어떤 위기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방안 대토론회 계획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진단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명품 신도시 건설

## ■ 행사개요

- 행사명 :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방안 대토론회
- 일시 : 2019. 1. 30. (수) 14:00 ~ 17:20
- 장소 : 경북도청 화백당(안민관 401호)
- 주최 :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관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
- 참석대상 : 200여명(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 등록 및 자료집 배포	
14:00 ~ 14:10	10'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자 : 마강래
14:10 ~ 14:30	20'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학회장/개발공사 사장/도지사
14:30 ~ 15:50	80'	○ 주제발표	· 권영종/전효재/조경훈/임미화
15:50 ~ 16:00	10'	○ 휴식(break time)	
16:00 ~ 17:00	60'	○ 종합토론	· 허재완/김상조/김철수/김현수/ 마강래/변창흠/정웅기/최대식
17:00 ~ 17:20	20'	○ 질의응답	

## 발제자 및 토론자

구분	이름	소속 / 직위	비고
발제	권영중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선임연구원	경북도청신도시의 교통체계구축 과제와 전략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경북도청신도시 관광플랫폼 전략과 과제
	조경훈	(주)오씨에스도시건축 소장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략 구상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경북도청신도시의 부동산마케팅 전략
토론	허재완 (좌장)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경제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도시계획
	변창흠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학부 교수	환경계획
	김상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도시계획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계획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역계획
	김철수	계명대학교 석좌교수	도시계획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위원	도시공학

# 도청신도시 활성화방안 토론회

## 주 제 발 표 주 요 내 용

### 1.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통체계구축 과제와 전략

※ 발표자 (권영종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과제 중 하나인 교통체계와 연계성 중요,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 중 KTX 네트워크로 전국 단일 도시화 형성
- 도청신도시의 교통과제로 전국, 도내, 신도시내의 교통접근성 확보

※ 경북도청 신도시 교통체계 구축 전략 제시

-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대 지역 간 교통접근성 확보 및 국제철도망 연결
- 도내 주요지역과 30분~1시간 내 광역적 교통접근성 확보
- 도청신도시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 2. 경북도청 신도시의 관광플랫폼화 전략과 과제

※ 발표자(전효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 경북발전과 경북도청 신도시와의 관계
- 경북도청신도시와 관광중심도시의 역할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
- 대한민국 역사문화자산보고, 유교문화의 성지인 경북지역

※ 경북도청 신도시의 관광플랫폼 구상

- UN-2030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회적 경제 구조 연계 : 빈곤, 기아, 평화 등 17개 목표 설정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통합
- 2030 SDG의 3대 관광 정책목표 : 관광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 진흥,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확립, 건강한 해양관광 생태계이용
- 글로벌 문화의 생산, 교류, 유통하는 아시아 관광중심도시로 발전
- 지능형 경북관광 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경북관광혁신 플랫폼(VR/AR, 5G모바일, 인공지능 등) 구축

### 3.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전략 구상

#### ※ 발표자(조경훈 - OCS도시건축 소장)

- 경북도청 신도시 내·외부적 이슈 및 사례분석 : 내부적 이슈로 1단계 목표 인구달성, 주요시설 설치지연등 문제제기, 외부적 이슈로 광역교통체계 개선, 미래성장산업유지 등 문제 제기
- 신도시 특화 사례 분석(남약신도시,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 경북도청 신도시 진단 :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진단

#### ※ 활성화 전략 구상

- 경제적 자산 확충 전략 : 행정타운 조기입주, 스마트 테크노밸리, 6차 농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
- 사회적 자산 강화 전략 : 도시첨단산단 지정, 한류문화 빌리지, 안동/예천 도시재생 지원, 건강한 해양관광 생태계이용
- 환경적 자산 특화 전략 : 헬스케어타운, 수변 관광단지
- 활성화 전략 기본 구상 : 발전, 광역교통, 산업단지, 도시재생 측면에서 구상, 발전

### 4. 경북도청 신도시의 부동산 마케팅 전략

#### ※ 발표자(임미화 - 전주대학교 교수)

- 경북 부동산시장 현황 분석 : 주택보급률 전국최고(114.7%), 아파트매매 가격 수도권 1/3수준, 경북 인구증가율 둔화, 높은 노령인구 증가율 등 분석
- 경북도청신도시의 도시경쟁력 분석 : 수요 및 설문조사, 가격, 공급 및 인구 이동 특성 등 분석

#### ※ 경북도청 신도시의 부동산 마케팅 전략

- 거점도시전략 : 네트워크균형을 위한 지역 거점도시조성, 주변도시와 연계 교통망·서비스망 구축, 스마트리전(smart region) 공간개발전략(경제권, 서비스권 전략구성)
- 광역수요망 구축 : 신도시중심으로 광역 수요망 구축 및 인근 시군과 상생

- 단계별 공급전략

-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선호도에 따라 차별적 주택시장 형성 고려
- 특화주거단지, 문화산업단지 공급 후 일반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급 고려

- 판매전략

- 입지적, 공급적, 수요적, 정책적 요인 분석으로 방향 제시
  - ☞ 토지리턴제, 특화단지 조기 착공시 인센티브 지원, 특화거리조성 등
- 귀농, 귀농지원으로 수요전략 추진
- 스마트시티 기능 도입
  - ☞ 관광용 공유자동차, 리빙랩, 원격의료, 화상진료 등 특화

- 도시전략 : 원격공공서비스 공급, 수요 부응형 대중교통망 구축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생활경제교통과			
		작성자	과장	정중태		
			팀장	김주한	담당자	조재현
연락처	054-880-2496					

## 경북도,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 대폭 강화

- 대성청정에너지(주), 도시가스요금 검찰수사 발표 대응... 방안 마련 -
-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

경상북도는 30일(수) 검찰의 대성청정에너지(주)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득 34억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성청정에너지(주) 공급권역 :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의 어려움과 관행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한 일로, 경북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이득의 회수, 요금산정의 엄정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풀려 제출할 여지가 있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실시한 검증용역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검증용역 수행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토록 하고 ▲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검증용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여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함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재검토하여 회사가 자료를 과실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 도시가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 도시가스요금 산정 및 관리강화 방안>

① 체크리스트 활용	-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 중점 점검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활용
② 용역기간 확대	- 용역수행기간을 (현재)2개월 정도 → (개선)3개월이상 보장하여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높임
③ 물가대책위원회 역할 강화	-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 회계사를 (현재)1명 →(개선) 3명이상 참여시켜 전문성 강화 - 회계사에게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
④ 용역시 전년도 공급비용 재검증	- 다음연도 공급비용 용역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 재검토
⑤ 정보공개 확대	-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산정 자료를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한 공개
⑥ 제도개선 건의	-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건의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금산정 처벌 강화(명문화) 요청

경북도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도내 4개권역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금산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이번사례 전과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정직한 경영과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가스요금에 반영해(요금인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 도시가스요금 산정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 □ 현 상 황

-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 회계법인에 검증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공급비용을 마련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 용역수행 회계법인 선정 : 전국 공개입찰

## □ 문 제 점

-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 자료 제출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가를 부풀려서 제출 가능성 상존
- 전문회계법인이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움
  - 공급비용 담당 공무원의 회계 전문성 부족

## □ 개선방안

### ① 공급비용 산정용역시 중점 체크리스트 작성, 철저 검증

- 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원가산정 항목을 고의 또는 실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한 후 용역수행 시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 및 확인 실시

### ② 검증 용역 기간 확대

-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수행기간 연장 : (현재)2개월 이내 → (개선) 3개월 이상
  -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역기간을 보장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건의 (개정방향) 회사의 자료 제출(4월말) → 공급비용 시행(9.1일 또는 익년 1.1일)

### ③ 물가대책위원회 역할(2차 검증) 강화

- 공급비용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 회계사 참여 확대
  - (현재) 1명 → (개선) 3명 이상
- 물가대책위원회 참여 회계사에게 공급비용 산정결과 2차 검증
  - 2차 검증을 통해 회계법인이 성실히 용역을 수행토록 유도하고, 공급비용 산정 용역의 실효성 제고

### ④ 공급비용 결정 절차 및 자료 공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산정 자료 최대한 공개
  - \* 현재, 공급비용 산정 용역보고서 및 일부 원가자료 공개

### ⑤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자료 재차 검증

- 회사에서 제출한 전년도 공급비용 자료 재검증
  -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 용역시 전년도 공급비용 기초자료 재검토
    - ⇒ 다음연도 재검토를 통해 자료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 차단
    - ※ 동일 회계법인이 2년 연속 용역수행시 차년도에 재검증 추가 실시

### ⑥ 도시가스 관련 기타 제도개선 건의(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건의
- 도시가스 회사의 고의·과실에 대한 처벌 강화(명문화) 건의
  - 도시가스사업법에 자료의 거짓 작성 관련 처벌조항 신설 등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장	이장준		
			팀장	홍인기	주무관	권미선
		연락처	054-880-2476			

## 경북도, 기업중심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 열어

-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

경상북도는 30일(수) (재)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신산업에 기반한 특구 지정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이날 설명회에는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산단, 관련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특구 계획수립 방법과 신청 분야·방법·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외 수출관련 기업의 관심을 유도한 글로벌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 ‘헬프 데스크’도 운영했다.

설명회의 주요 화두인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17일부터 처음 도입·시행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지정효과 >



급변하는 시장트렌드 속에서 시장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규제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혜택도 특구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 **규제 신속 확인**은 기업이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안에 빠르게 회신을 하고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실증 특례**는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을 허용
- \* **임시허가**는 허가 같은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아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함

경북도는 단순 홍보 형식의 설명회에 그치지 않도록 경북TP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농기계 등 신기술 기반사업 발굴, 특구 지정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 등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에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신산업 기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등 4차산업 기반을 통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 특화센터,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붙임 규제 3종세트 예시

## < 규제 신속 확인 >

### 배달로봇

- ◆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
- ◆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모호

#### 규제 신속확인

- ◆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 농장의 지형과 작업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주행하며 자동변속과 농작업이 가능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중

#### 규제 신속확인

- ◆ 농지외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 및 도로주행 가능 시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 실증특례 >

### 대중교통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 ◆ 버스상단에 디지털 사이니지 구조물을 부착하여 LED전광판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광고 및 교통정보 등 제공
- ◆ 현행 옥외 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상황

#### 실증특례

- ◆ 디지털 사이니지 구조물의 무게·크기 등이 버스 차체안전성 및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성 등을 실증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특례 가능



## < 임시허가 >

### 공공목적을 위한 무인드론 활용 점검 서비스

- ◆ 하천조사 및 철도시설 점검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조사·감시 서비스
- ◆ 하천조사 및 철도시설 상태점검 등은 긴급비행이 가능한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시허가

- ◆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드론을 시장출시 하고자 할 경우, 임시허가 필요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 자	과 장	김 병 곤		
			팀 장	채홍승	주무관	김기환
		연 락 처	054-880-3196			

## 설 연휴 경북의 대물림 향토맛집으로 떠나는 맛있고 신나는 겨울여행

- 수십년 대대로 이어 온 맛의 전통, 입맛을 사로잡는 경북의 대물림 맛집 -
- 설 연휴에 떠나는 맛있는 겨울여행, 건강과 즐거움이 듬뿍 -

일상의 스트레스와 짐을 내려 두고 떠나는 여행에서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놓을 수 있을까... TV 여행프로그램에서는 매일매일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각국의 숨은 맛집을 찾아 구석구석 여행을 떠난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변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도 있다. 수십 년간 대를 이어 전해 오는 맛의 전통과 비법을 지켜가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경북의 대물림 향토맛집... 주인장의 외고집 레시피와 한두 가지만으로 충분한 메뉴, 맛을 위해서라면 원가와 관계없이 언제나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곳이다.

수십 년 단골손님들의 경험담을 통해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맛집 매니아들이 몰려드는 곳이 대물림 맛집이다.

이번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여행으로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 <형산강 다리 밑에서 시작한 매운탕 60년, 포항 한마당매운탕>

포항은 바다의 도시다. 싱싱한 생선회와 과메기 등 바닷물고기는 전국에서도 으뜸이다. 하지만 민물고기를 끓여내는 칼칼하고 시원한 민물매운탕으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한마당 민물매운탕이다.

형산강에서 잡은 고기로 매운탕을 끓인 지 60년, 24살에 결혼해 시어머니

에게서 배운 비법을 손맛 좋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다.

3대를 거쳐 왔고 얼마 전 인덕동으로 이전해 왔지만 매운탕에 대한 진심과 정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예전처럼 형산강 물고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산 민물고기를 쓰고 있다. 냉동해서 쓰지 않고 신선한 물고기만을 고집한다.

잡어에 아무리 뼈가 많아도 고기를 갈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히 끓여낸 육수만을 사용한다. 포항의 그 많은 바닷가 횃집을 제쳐 두고 손님이 찾아오는 이유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젊은 층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민물매운탕을 먹고 원기회복한 후 죽도시장과 포항 영일만 겨울바다, 대표 겨울먹거리 과메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구룡포과메기문화관 까지 다녀온다면 더욱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이다.

### <95년을 지켜온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 경주 함양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빔밥집... 무려 95년 4대를 이어오는 경주 함양집이다.

유기그릇에 따뜻한 온기와 함께 담아 낸 비빔밥 한 그릇에서 세월과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 온다. 원래 1924년 울산 함양집으로 시작한 후 4대 사장의 남편이 경주에도 오픈을 했다.

보문단지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함양집은 전통 기와집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더욱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유기그릇에 안강미로 지어진 흰밥과 무나물, 시금치 등 나물과 김, 그리고 육회와 전복, 참기름에 계란지단 까지 더해진 비빔밥을 마주해 휴대폰 촬영을 마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담백하게 끓여 낸 쇠고기 탕국과 함께 정갈한 반찬들도 빼놓을 수 없다. 쓱쓱 비벼대며 먹는 즐거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강태원 대표는 백년을 바라보며 서울의 이문설농탕, 나주의 하얀집과

함께 100년 클럽을 만들겠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당연히 경주의 불거리, 즐길거리를 만나러 가야 한다. 바로 옆의 보문단지,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문호반광장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매일 오후 2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준비한 설날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5일에는 설날연휴 특별이벤트로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마술쇼, 통기타 공연 등이 열리고 가훈 써주기, 민속놀이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 <비밀스런 유기전골에 육해공의 산해진미가 풍덩, 김천 대도식당>

옛 선비의 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전골냄비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마법의 냄비다. 끓을수록 깊은 맛을 내게 하는 묘한 유기 전골에 담긴 육해공의 산해진미를 보고 있으면 궁중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35년 째 유일한 메뉴인 궁중전골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게 된다.

처음 본 손님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은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둥글게 놓여진 갓가지 먹거리들이다. 대파를 깔고 차돌박이와 굴, 대구 곤, 오징어가 자리잡고 있고 고명으로 새우, 메추리알, 대추가 올려져 있다.

옴푹 패인 중간 부분에서부터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서서히 재료들이 익어 가고 육해공이 함께 만든 환상적 콜라보가 맛있는 즐거움의 클라이막스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 우동사리는 혹시 있을지 모를 부족함을 확실히 채워 준다.

그리고 대도식당을 나서 자산동 벽화거리를 지나 김천시내의 나지막한 산 정상에 있는 자산공원에 오르면 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가슴속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20분 정도 이동하면 김천의 대표 관광지인 황악산 직지사과 하야로비 공원에 갈 수 있다.

좀 더 백두대간 깊은 곳으로 다가서면 수도산, 대덕산을 마주하게 되며 천년 고찰 청암사에서 인현왕후길을 걸어 보는 것은 여행을 더욱 더 특별하게 한다.

## <50년을 이어 온 최고의 소울푸드 선지국밥, 안동 옥야식당>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안동 신시장 먹자골목에 있는 안동 옥야식당은 선지국밥 하나로 신시장의 명물로 자리잡은 지 50여 년이 된 대표 맛집이다.

커다란 가마솥만한 국 냄비가 네 개나 걸려 있고 온 종일 무언가 끓고 있다. 진한 국물을 우리기 위한 갈비뼈와 등뼈, 양지와 아롱사태, 배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야채들, 그리고 주인공 선지가 함께 삶아 지면서 맛과 향의 하모니가 오감을 설레게 한다.

잘 익은 선지와 넉넉한 쇠고기가 함께 들어간 국밥 한 그릇에는 주인장 최순월 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한 평생 매일같이 새벽 4시부터 선지국을 끓여 왔으며 이제는 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 할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옥야식당 선지국밥은 안동 한우양지와 사태가 육개장과 비교해도 적지 않을 만큼 듬뿍 들어간다. 특히 국물에서 텁텁함이 아닌 달콤함을 느낄 수 있으며 순한 맛과 진한 맛, 부드러움과 칼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왜 한국인의 소울 푸드라고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국밥과 함께 밑반찬으로 나오는 석박지와 배추김치, 고추지는 뜨거운 국밥을 쉬어 가며 먹을 수 있게 한다.

안동 신시장에는 옥야식당 외에도 많은 먹거리와 살거리가 가득하다. 양반의 도시 안동은 내륙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안동문어와 간고등어가 대표 먹거리로 유명하다.

신시장과 함께 안동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전통시장 구시장에는 안동 찜닭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안동은 시 전체가 관광지이며 어딜 가든 문화재가 널려 있다.

시장과 가까운 곳에 월영교와 임청각, 안동댐이 있고 30분 이내에 있는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설날에는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에 무료로 입장할 있고 하회별신굿 탈놀이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유교랜드는 입장료를 20% 할인한다.

### <40년 넘게 이어진 얼큰하고 시원한 보양식, 구미 순덕이네매운탕>

구미시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일선교를 따라 건너면 40년 넘게 매운탕으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순덕이네매운탕이 있다. 할머니에서 시작해 어머니를 거쳐 딸에게 이어진 3대 대물림 맛집이다.

싱싱한 메기를 깨끗하게 손질한 후 고추장, 마늘, 파 등 갖은 양념을 듬뿍 넣고 끓이다가 쫄득한 수제비를 던져 넣고 다시 한 번 더 끓인다.

메기 특유의 진흙냄새 때문에 메기매운탕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칼칼한 고추장과 싱싱한 채소가 비린내를 완벽히 없애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맛의 핵심은 고추장이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맛을 이어가기 위해 직접 고추장 담는 일에 매년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메기인 만큼 한 그릇 먹고 나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몸이 먼저 느끼게 된다. 순덕이네매운탕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의 원기를 채워 주는 진정한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거뜰해진 몸과 마음으로 나서 낙동강의 상쾌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

강변도로를 따라 구미 시내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신라시대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도리사가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사리가 모셔진 고찰이니 간절히 기도하면 기해년 한 해 소망하는 바가 꼭 이루어 질 것이다.

### <문경새재 걷고 약돌돼지 석쇠구이로 든든해지고, 문경 새재할매집>

문경새재 가는 길에는 유명한 약돌돼지 구이집이 많다. 약돌돼지는 거정석이라고 하는 약돌을 사료에 섞어 먹여 기른 돼지로 쫄깃한 식감과

영양도 높다고 한다. 문경에 거정석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 문경을 대표하는 돼지고기 브랜드가 되었다.

저마다 특유의 맛을 자랑하는 식당들이 많은 가운데 새재할매집은 45년 전 어머니가 새재산장이라는 민박과 함께 시작한 식당을 이어 받아 대를 이어 오고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백숙에 곁들여 석쇠구이를 시작했는데 삼겹살에 고추장 양념을 버무려 연탄불에 구워내니 백숙보다 인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비법은 손맛이다. 어머니는 된장과 고추장은 언제나 직접 담궜고 아들도 여전히 직접 담고 있다.

양념에 들어가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물어 보는 손님들에게 주인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보다 첨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굳이 비법이라면 향 좋은 들기름을 더하고 육즙과 불맛을 살리면서 구워내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굽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군침이 돈다. 숯불에 직접 석쇠를 올려 빠른 속도로 구워 내기 때문에 고기가 조금 얇다고 느낄 수 있으나 깊이 배인 숯불 향은 부드러운 고기와 잘 어울리며 어린아이나 치아가 약한 어른들이 먹기에는 더욱 좋다.

문경은 경북을 대표하는 내륙관광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는 문경새재는 전국에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새재 아래 도자기전시관에서는 조선 민요(民謠)의 전통을 대표하는 문경도자기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에코타운과 야외체험시설 등으로 개장한 문경 에코랄라도 꼭 한번 가볼 만하다.

### <새벽에 정갈하게 내 놓는 청포묵, 예천 전국을 달리는 청포집>

예천군 예천읍 맛고을기에 가면 매일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청포묵을 먹을 수 있다. 새벽 4시부터 묵을 만드는 주인은 시어머니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다. 녹두를 불려 껍질을 까고 갈아서 자루에 넣어 치대고 거르기 까지, 묵을 쭈는 일은 무척 고된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하고 있다. 청포묵 정식에 차려지는 반찬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직접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된장찌개와 조기구이가 찾아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

조기탕평채를 본 떠 만든 청포묵비빔밥도 인기메뉴다. 시어머니를 떠나 보낸 후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이제 다섯 자식 중 누군가가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내에는 수십 년간 철학과 전통을 이어 오는 대물림 맛집이 여러 곳 있다. 대를 잇는 자부심과 주인장의 맛에 대한 고집이 느껴지는 경산 솔매기식당은 직접 만든 국산 콩두부와 달짝지근한 호박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가고 있다.

닭 국물이 담백하고 고소한 달기약수백숙이 유명한 청송에는 백숙과 닭 떡갈비를 3대에 걸쳐 40년 째 이어오고 있는 서울여관식당이 있고 대게와 물곰탕이 유명한 울진에도 군청 앞에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 만나삼계탕이 있다.

특히 유명한 일식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김천역 앞에는 80년을 바라보는 정통일식 초밥집이 있다. 1942년 할아버지가 시작한 가게를 3대째 지켜오고 있는 대성암이다.

영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 육회의 맛을 지켜오는 편대장영화식당과 화평대군, 문경에서 정식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1호 어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어 받은 영남매운탕집, 예천 용궁순대와 오징어연탄구이로 널리 알려진 박달식당과 단골식당 등 대를 이어오는 향토 맛집이 도내에는 30곳이 넘는다. 모두가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가까운 주위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다.

5일 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에, 혹은 돌아오는 길에 경북의 대물림 향토 맛집을 한 번 둘러 본다면 맛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맛있고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담당	구자숙 박승권	주무관	이은숙 정미란	
연락처	054-880-3788 054-880-3801						

## 경북도, 설 연휴 비상진료 및 방역체계 구축

- 도 및 시군에 비상대책 응급·방역 총 53개반 226명 가동 -
- 응급의료기관 32개소, 당직의료기관 1,016개소, 휴일지킴이약국 971개소 운영 -

경상북도는 설 연휴기간인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비상진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도 및 시군에 26개반 116명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응급의료기관 32개소는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의원 1,016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971개소를 연휴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지정 운영해 귀성객 불편과 진료공백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현황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 보건소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도내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재난의료 지원팀을 편성,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 는 상시 출동대비 태세를 갖추고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는다.

\* 재난거점병원 : 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또한 경북도는 귀성객의 대이동과 명절음식 공동 섭취,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인한 환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신속 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해 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에 27개반 110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아울러 도내 병·의원, 학교, 약국, 통·리·반장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 1,857개소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55개소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유무를 신속히 파악한다.

또한, 연휴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여행객 감염병 예방홍보와 오염지역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홍역이 설 연휴기간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홍역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연휴 동안 비상진료에 협조해 주시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고마움을 전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참고 1

## 도내 응급의료기관 현황('19. 1월 현재)

구 분	병 원 명	주 소	병원분류	지정일자
권역 응급의료센터 (3개소)	안동병원	안동시 양실로 11	종합병원	2000.08.25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종합병원	2017.02.21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종합병원	2017.07.19
지역응급 의료센터 (6개소)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종합병원	2004.01.26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주시 동대로 87	종합병원	2008.05.02
	김천제일병원	김천시 신읍1길 12	종합병원	2009.07.13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서동문로 99	종합병원	2000.10.04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구미시 1공단로 179	종합병원	2000.11.04
	(의)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문경시 당교3길 25	종합병원	2009.05.14
지역응급 의료기관 (23개소)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종합병원	2003.06.17
	에스포항병원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52	종합병원	2016.04.21
	좋은선린병원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병원	2016.09.0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김천시 모암길 24	종합병원	2000.09.0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안동시 태사2길 55	종합병원	1995.01.27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 20길 46	종합병원	2008.03.24
	영주기독병원	영주시 구성로 380	병원	2014.10.29
	영주가톨릭병원	영주시 번영로 176	병원	2009.09.01
	영주적십자병원	영주시 대학로 327	종합병원	2018.6.28
	영남대학교부속 영천병원	영천시 오수1길 10	종합병원	2000.08.21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시 상서문로 53	종합병원	1995.01.27
	상주성모병원	상주시 내림서성길 9	종합병원	1995.03.09
	문경중앙병원	문경시 중앙로 117-18	병원	2007.04.02
	(의)서명의료재단세명병원	경산시 경안로 208	병원	2008.06.04
	경산중앙병원	경산시 경안로 11	종합병원	2011.03.03
	영남제일병원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36	병원	2013.04.01
	청송군보건의료원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병원	2009.10.29
	청도대남병원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	병원	2009.12.09
	고령영생병원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3	병원	2011.01.31
	성주무강병원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5-3	병원	2012.07.31
	예천권병원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병원	2011.12.27
	울진군의료원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병원	2004.12.01
	울릉군보건의료원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병원	2012.07.10

## 참고 2

##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①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식사 전, 철저한 손 씻기
- ② 끓이거나 소독된 물,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 ③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④ 설사증상이 있을 경우, 상처 난 손으로 음식조리 금지
- ⑤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 관리
- ⑥ 설사 증상자 발생 시 즉시 인근 보건소에 신고

## 참고 3

## [홍역예방] 기침예절 및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을 필수
- 2. 옷소매로 가리기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 2. 손등
- 3. 손가락 사이
- 4. 두 손 모아
- 5. 엄지 손가락
- 6. 손등 밑

발행일 2018.3.21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			
		작성자	과장	정현표		
			팀장	이상열	주무관	이석우
		연락처	054-880-7619			

## 새로운 동해안 100년의 먹거리·일자리 찾는다

-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경상북도는 30일(수)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환동해지역본부 포항 이전과 민선7기 출범,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새로운 동해안권 발전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10개월이며 경북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발전전략을 담는다.

주요내용은 ▲ 동해안의 여건과 환경분석, 국내외 산업동향 및 변화 분석 ▲ 동해안권의 혁신성장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구상 ▲ 해양신산업,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전안전, 에너지산업), 해양관광, 수산, 항만·물류, 독도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내년도가 감포항, 구룡포항, 울릉항이 열린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무한한 잠재력과 숨은 보석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해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일 자리를 중점 발굴하기 용역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번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월 중간 보고회, 9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0월에 완료하는 이번 용역에서 발굴된 내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국비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장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 환동해 청사진 제시와 함께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동해안 100년의 첫 걸음을 준비하고 경북의 미래먹거리와 일 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성자	과장	김재준			
			팀장	엄태인	주무관	정남권	
연락처	054-880-3591						

## 산림기관·단체장 한자리에... 경북도 산림시책회의 가져

- 올해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복지 등에 2,800억원 투입 -

경상북도는 30일(수)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에서 산림관련 기관·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림시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 산림관련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면 현안사항인 산림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다양한 산림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올해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산림자원 순환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으로 도민 안전망 확충,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을 펼친다.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림·숲가꾸기, 벌채 및 임목생산, 목재가공·유통, 소비를 통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산주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임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림(223억)▲숲가꾸기(316억)▲임도사업(275억)▲목재산업시설(21억)▲청정임산물 생산이용증진(161억)▲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75억)

또한 국민의 산림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지방정원, 산림복지

단지조성, 산촌거점권역지원 등을 조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한다.

▲목재문화체험장(23억)▲자연휴양림(72억)▲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70억)▲치유의 숲(196억)▲숲길조성(92억)▲산림레포츠시설(285억)▲백두대간생태복원(100억)▲지방 정원(60억)▲산림복지단지조성(80억)▲산촌거점권역지원(500억)

아울러 효율적인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현장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과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예찰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데 힘쓴다.

▲산불방지(371억)▲사방사업(340억)▲병해충방제(245억)▲산림재해일자리(171억)▲공공산림가꾸기(30억)▲산림서비스도우미(23억)

특히 올해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고버섯클러스터(문경)조성에 170억원을 투입해 100여명의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산림녹화의 산실일 영일만 사방지구에 위치한 사방기술센터에 한국 산림기술자 교육원을 유치한다.

아울러,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활용한 미세먼지저감조림 518ha, 도시바람길숲(구미), 미세먼지 차단숲(포항, 5ha)을 조성해 대기 환경질을 개선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숲과 산림을 잘 가꿔 소득을 올리고 도민이 숲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복지를 증진해 나가자”면서 “봄철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붙임 사진자료

-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에서 행복한 경상북도 -  
**2019년 산림시책 회의**

◇ 도내 주요 산림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시책회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30.(수), 14:00 ~ 16:00
- 장 소 :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323)
- 참여인원 : 100명 정도(도시군 산림관계관, 관련분야 기관·단체장 등)
- 주요내용
  - 2019년 주요 산림시책 설명(협조 및 당부)
  - 기관·단체별 애로사항 건의 및 현안사항 토론 등

###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4:15	5'	▶ 인사말씀	
14:15~15:25	70'	▶ 2018 산림시책 소개 (협조 및 당부)	
15:25~16:00	35'	▶ 애로 및 건의, 현안사항 토론 등	
16:00		▶ 해 산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 자	과 장	한 재 성		
			팀 장	이재훈	주무관	김우선
연 락 처	053-880-3126					

---

## 우리가락에 새해 소망 싣고 얼썩... 새해 첫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

- 31일(목) 저녁 7시,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 -

---

경상북도는 31일(목) 저녁 7시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제14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민의 화합, 융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harmony’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교수이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역임한 공우영 객원지휘자 지휘로 진행되며, 오정해와 유태평양이 특별출연해 소리와 노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시작은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을 원곡으로 작곡된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 젊은 소리꾼 유태평양이 특별출연해 지방 장터를 찾아다니며 문 앞에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구걸을 해 붙여진 노래 <장타령>, 판소리 ‘춘향가’의 삼입가요로 가락을 앞둔 연인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그려낸 <신사랑가>, 전통 아리랑 선율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음색과 정서가 담긴 가사로 호평을 받은 곡 <홀로아리랑>을 소리로 표현한다.

또한, 국악인 오정해가 출연해 제주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민요 <너영나영>,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과 서러움을 그린 노래 <목포의 눈물>, 판소리 단가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인생 무상을 노래한 <사철가>를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른다.

공연 후반부에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피리 수석 김세현이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를 연주하며, 타악기와 태평소의 흥겹고 신나는 어울림이 돋보이는 곡 <판놀음>을 도립국악단 풍물팀이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연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은 1992년 12월 1일 창단된 이래 59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악관현악을 위주로 하되 정악, 민속악, 사물 등 국악의 전반적 분야를 아우르며 현대적인 감각의 창작국악 개발과 함께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기해년 첫 음악회를 우륵을 배출한 가야금의 고장 고령에서 희망찬 새해맞이와 도민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신명나고 흥겨운 도립국악단 공연으로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내 구석 구석 찾아가는 연주회와 기획공연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연문의> 도 문화예술과 054)880-3126   도립국악단 054)955-3832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성자	과장	유창근			
			팀장	전년무	주무관	이종승	
연락처	054-880-2322						

## 경북도, 설연휴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화재예방 캠페인도 가져

- 예천군 상설시장 상가 전기·가스시설점검... 소화기 전달 -

경상북도는 30일(수) 예천군 상설시장에서 경북 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안전기동대, 재난안전실 직원 및 예천군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내 상가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화재발생 사각 상가에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시장 상인회에 소화기 20대를 전달하였으며 점차 찾는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보탬을 주기 위해 화재예방 캠페인 후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평소 시설 안전점검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사진자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성자	과장	권태영			
			팀장	고진용	담당자	최진국	
		연락처	053-320-0286				

## 도 농업기술원, 미래기술 중심 연구개발사업 시행

- 신규 연구과제 선정 심의회... 스마트팜, 기상재해 대비 등 26개 과제 선정 -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참여 현장실용공동연구 23과제 추진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30일(수) 기술원 회의실에서 ‘2019년 경북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경북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우리 농촌·농업이 직면한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상 이변 등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기관 고유사업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 연구사와 관련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대학 교수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물연구과의 ‘생력재배를 위한 건전모 생산기술 개발’ 등 26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장실용공동연구 분야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양송이 세균성 병해 감소를 위한 환경관리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 13개 시군에서 신청한 23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매년 기관 고유사업, 현장실용공동연구, 기획연구 등 150여 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산딸기, 딸기, 장미 등 7개 작목에서 12종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샤인머스켓의 적정 착과량’ 등 영농 신기술 98건을 개발하였으며, ‘산딸기 발효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전통주' 특히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한편 정책제안 40건 등 총 150건의 성과를 올렸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사업은 농업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개발이 목적”이라며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이 함께 협력하여 경북도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심의회 추진계획

□ 일 시 : 2019. 1. 30.(수) 10:00 ~ 15:15

□ 장 소 : 농업기술원 본관 4층 회의실

□ 내 용

- 2019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심의 : 26과제
  - 작물(7과제), 원예경영(9과제), 농업환경(10과제)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15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li> <li>○ 내외빈 소개</li> <li>○ 원장님 인사말씀</li> </ul>
10:15 ~ 10:20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심의 장소 이동 (작물, 원예 - 본관 4층 농업환경 - 연구동 2층)</li> </ul>
10:20 ~ 12:0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분야 심의(7과제)</li> <li>○ 농업환경분야 심의(10과제)</li> </ul>
13:00 ~ 15:15	7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분야 심의(9과제)</li> </ul>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 30(수)】</b>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 자	과 장	김진욱		
			소방령	민병관	소방경	이종혁
		연락처	054-880-6210			

##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가져

- 전담의용소방대원 775명...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교육 -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 775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4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운전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김정석 포항북부소방서 송라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역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직접 소방차량을 운전해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역량을 높여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힘써 달라” 고 대원들에게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울진군 현장 간담회’ 개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31일(목) 오후 3시 울진군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